

# 광주·전남 기름값 이라서 타지역 보다 싸구나

## 인구 대비 주유소 많고 판매량은 적어 평균 1934원대...완도 2000원 첫 등장

광주·전남지역의 기름값이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광주는 1999원, 전남은 2000원을 경신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은 인구대비 주유소가 많아 전국대비 가장 싼 기름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전남지역의 보통휘발유 1ℓ 당 평균가격은 1934.32원

으로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싼 지역이였으며 광주는 1934.46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2026.82원에 비하면 무려 92.36원이나 저렴했으며 부산의 1955.59원, 대전의 1957.79원보다도 각각 21.13원, 23.33원이 낮았다.

적어 주유소들의 가격경쟁이 유난히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주유소협회의 5월 기준 전국 주유소 현황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 7대 특광역시와 비교시 광주·전남의 주유소 수는 각각 335곳, 954곳이며 서울은 670곳, 부산은 506곳, 대구는 459곳, 인천은 406곳, 대전은 292곳, 울산은 290곳의 주유소가 등록돼있다. 이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수로 나눠보면 광주는 147만명의 인구에 4405명당 1곳의 주유소가 있고, 전남은 171만명의 인구에 1824명당 1곳이 있는 반면, 서울은 1만4617명, 부산 6749명, 인천 6559명, 대구 5328명, 대전 5143명, 울산 3734명이다. 광주는 공업이 발달해 기름 수요가 많은 울산을 제외하

면 7대 특광역시 중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은 주유소가 영업중이다.

많은 주유소가 영업중이지만 기름 소비량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주유소협회의 지난 2010년 지역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등을 합친 광주·전남의 월평균 기름 판매량은 각각 935.58드림(200ℓ), 693.56드림으로 광주는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1702.70, 부산 1250.48, 대구 1059.41, 인천 1458.49, 대전 1005.59, 울산 1071.68에 비하면 유일하게 1000드림 이상을 팔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기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2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한 한 주유소업주는 "광주와 전남의 주유소들은 가격

경쟁이 심한 탓에 좀처럼 낮은 기름값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주유소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완도군 소안면의 한 주유소가 31일 기준 보통휘발유 1ℓ 당 가격이 2000원을 기록한 데 이어 광주지역 주유소들도 조만간 2000원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동구에서는 동명동과 산수동 등 4곳의 주유소가 보통휘발유 1ℓ에 1998원을 받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치평동의 1곳이 1999원을, 북구는 신안동 등 2곳의 주유소가 1995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기관 매수 상위 업종 공략 유효 유통 등 소비재 중심 매매 필요

국내 증시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2/4분기 실적발표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채무 한도 증액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디폴트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재정긴축과 관련한 신용등급 하락조정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에 이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데다, 신용등급 하락조정 이슈가 미치는 파장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도증액 합의로 가는 과정에서 겪을 심리적 불안감과 변동성일 것이다.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채무 한도 증액 문제가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럴때일수록 펀더멘털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들어 경기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용과 생산의 점진적인 개선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대지진 이후 위축됐던 산업지표들이 6월 중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하반기 소비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 경제의 계절성까지 감안하면 3/4분기 이후의 경기흐름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국내 경기측면에서도 지난 주말 기대했던 소식이 전해졌다. 6월 산업활동이 거의 전 부문에서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두 달 연속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6월 수출은 486억 달러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경상수지는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4분기 그렇게 다양했던 악재들 속에서도 경기 모멘텀의 턴아라운드라 시작됐다는 것이며 최근의 부진한 기업실적에 대한 부담도 일정부분 완화시켜 주는 뉴스이다.

아직 대외변수의 불만감과 업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발표, 그리고 시장 에너지의 취약한 흐름 등이 남아있어 이번 주에도 불안한 등락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기술적 분석 상 KOSPI 2100선에 경기선인 120일선과 주요 지지선들이 물러났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대외변수의 향방을 가능하는 과정에서의 바닥권 확인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국내자금 중심의 수급이 이어지는 만큼 기관의 매수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놓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우선은 2/4분기 이후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꾸준히 향상 조정되고 있는 유통, 음식료, 의료 등 소비재 업종 중심의 매매전략을 이어가려는 가운데 3/4분기 턴아라운드라 기대되는 반도체, 운송, 지주회사 등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가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사례에서 보듯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각국의 의지가 여전히 시장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순발력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등록금 내고 장학금 받으세요”

### 광주은행 '똑! 똑! 장학금 이벤트'

광주은행(KJB)은 1일부터 두 달 동안 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KJB 똑! 똑! 장학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등록금을 광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폰뱅킹, 은행 창구 등을 통해 납부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광주은행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한 고객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하기'에서 응모하면 된다.

1등 1명에게 장학금 200만원, 2등 2명 각각 장학금 100만원, 3등 20명에게는 각각 장학금 20만원의 행운이 주어진다. 또 행운상으로 총 30명에게 5만원 상당의 광주은행 카드 상품권을, 총 70명에게 3만원의 도서상품권을 줄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대학생 중 광주은행 대학생전용통장(U-Free) 가입 고객은 올해

연말까지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면제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참가는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응모하며 당첨은 10월 중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광주은행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집중호우 피해 금융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지원책에는 피해 입은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개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재해복구자금대책'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 만기 도래는 전액 기한연장을 해준다. 또한 피해자 직계가족의 생활안정 관련 자금 대출시 최고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수출입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 환어를 3개월 기한 연장하고 환율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특히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



“새콤달콤 자두 드세요”

3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제철맛이 과일 판매가 한창이다. 매장 찾은 한 고객이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진 자두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8월 지역기업 자금 악화 여전할 듯

### BSI 90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 그쳐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8월 중 자금 사정이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의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34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1년 7월 기업자금 사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중 광주·전남지역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

수)는 90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전달의 96에서 90로 6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은 83에서 89로 3포인트 상승했다.

7월 중 자금수요 BSI는 제조업(113→119)에서 6포인트 상승하고 비제조업

(105→106)에서 1포인트 상승해 전체적으로 3포인트 상승했다. 자금조달 BSI도 제조업(102→104)에서 2포인트, 비제조업(96→97)에서 1포인트 각각 상승, 전체적으로 99에서 101로 2포인트 상승했다.

또 8월 중 자금사정전망 BSI는 제조업(98→93)에서 5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85→88)3포인트 상승, 전체적으로 90을 기록해 전달의 91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BSI는 기준점이 100 이상이면 긍정을 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연금공단, 청소년 봉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민연금공단이 여름방학 기간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광주본부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봉사 의식 형성을 위해 '국

민연금 청소년 사회봉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참가자격은 광주지역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062-958-2016)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오리**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쉐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점심특선**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